논문 8

대학생활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처하는 방안 탐구

김 현 동[1)]

요 약

인터넷 중독은 대학입시가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생활과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대학진학률이 86%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7년에 조사된 교육고용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인터넷 중독은 수업태도의 성실성과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서량이 많아지면 인터넷 중독이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지만 문학 위주의 독서를 한다면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책 읽기를 통하여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시간이 많아지거나 독서에서 문학 비중이 높아지면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며 지도교수 면담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업태도가 성실해지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 현 연구는 독서, 동아리 활동과 지도교수 면담과 같은 학업에 부수적인 활동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인터넷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차후 연구에서 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을 대처할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인터넷 중독, 대학생 학교생활,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지도교수 면담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상상을 뛰어넘는 발전을 이루어 21세기는 이미 정보화시대로 탈바꿈되었다. 인터넷의 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면서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여가생활, 자료와 정보 획득, 커뮤니케이션, 쇼핑,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05년에 72.8%로 5년 동안 이용률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현재 77.1%로 조사되었다 (김병구.고영삼.김상준.나은영.이건.이기성.이수진.이혜경, 2007; 서재철·조찬형·김주영·안인희. 나은아·박수미, 2008). 인터넷 이용률의 가파른 증가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해주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한

1)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kim1415@dongguk.edu)

국사회에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터넷이 범람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의 침해, 스팸메일,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Lee, Ko, Song, Kwon, Lee, Nam, & Jung, 2007; 김병구 외, 2007; 서재철 외. 2008). 또한,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하며 학교생활과 직장업무 등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김병구 외, 2007; 서재철 외. 2008). 이렇듯, 한국사회에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관심이 더해가면서 현재 시급하게 대처하여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변영순・김은하・신수진・김현숙. 김지현・구재언・황은희・김정희. 박복남・이혜순・이은희・최송희・안영미・박애란・주민선・이정란・이승희, 2003).

인터넷 중독이란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한 채 인터넷 사용에 탐닉하며 인터넷사용을 억제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심리적 상태가 악화하면서 금단증상까지 나타나 사회적・직업적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뜻한다. 인터넷은 접근이 용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인적 교류를 넓히는 등 생활화가 되어 있어서 약물이나 도박보다 일반인이 손쉽게 중독될 수 있다 (이현아a, 2004).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을 분류하여 보면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이므로 학력 간 인터넷 활용에서 차이가 작다. 대학생은 초·중·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부모나 학교 선생님의 통제가 적어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기 쉽다. 이현아(2004a)가 인터넷 중독인 대학생을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 중독된 게임중독자와 교제중독자는 자기생활 조절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서 인터넷 중독은 정서적·신체적·학업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생활화에 따라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연구는 대학생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도가 달라지는지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본다. 인터넷 중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현상이므로 인터넷과 별개의 목적과 방향을 중독자에게 실행하여 인터넷에 대한 몰입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와 클럽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 중독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와 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터넷 중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자들은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자들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처하고 있다. 대학생은 부모와 주위 환경의 지도와 통제가 초중고생들과 비교하여 줄어들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기 쉽다. 대학생활에서 지도교수와의 상담이 활성화된다면 인터넷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서활동, 클럽활동,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대학생들이 나타내는 학업생활의 문제점이 완화되는지 검증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현 연구의 목적이다.

Ⅱ. 선행연구

Young (1996)은 심층면접과 설문지 조사를 활용하여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의존도가 낮은 사람들과 차별화된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채팅과 머드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과 접촉하는 횟수가 의존도가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Young (1996)은 알코올, 흡연, 도박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자들 또한 학업수행과 직장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며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현상의 존재와 심각성을 입증하였다(이현아, 2004).

2008년 현재 한국의 6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77.1%이며 연령별로 분류하면 10대(99.9%), 20대(99.7%), 30대(98.6%)에서는 전 인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40대: 82%, 50대: 49%, 60대 19%). 직업별로 분류하여도 학생 (99.9%), 사무직(99.6%), 전문/관리직(98/7%)은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서비스 관리직과 주부도 2/3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서재철 외. 2008). 이렇듯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타 OECD 국가를 월등하게 웃돌고 있으므로 인터넷은 다양한 편익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중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며 특히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게임은 청소년들의 성범죄와 폭력범죄를 유발하며 기성세대와의 문화충돌로 교실붕괴 현상을 낳고 있다 (이해경, 2002; 권재원, 2007). 학력에 대한 열망이 유달리 강한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대학진학을 좌우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해경, 2002; 권재원, 2007). 하지만,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통제가 줄어들며 정보화 기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빈번한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도가 청소년들보다 사실상 훨씬 높을 수 있다. 1980-90년대와 달리 대학교들이 세계화를 지향하고 상호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학사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에다 취업난과 맞물려 상당수의 대학생은 학업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현실적인 고민과 스트레스를 잊고자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과 채팅을 즐기며 중독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생들 또한 중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의 심각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현아(2004a)는 10명 정도 대학생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사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유형별(게임중독자, 교제중독자, 전공자)로 다르다고 분석하였으며 이 중 게임중독자와 교제중독자는 자기효능감과 시간관리능력이 낮고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서 학업과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변영순 외 연구자들은 (2003)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고 분석되었다. 엄나래와 정영숙(2002)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현실 여가활동보다 사이버 여가활동에서 몰입 경험을 더 자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대학진학률이 86%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생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추정된다.

이렇듯 대학생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소수의 선행연구

에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아, 2004b). 이현아(2004b)는 인터넷 중독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허비하여 시간관리능력이 떨어지므로 시간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터넷 중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인터넷중독 대처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박승민·장선숙·임은미(2007)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현 감정, 사고, 행동상태를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도록 유도한 결과 인터넷 중독 수치와 가상세계 몰입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현상임에도 단지 몇몇 선행연구만이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대처방안을 탐색하고 제안하였으므로 대학생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비한 감이 있다. 따라서, 현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한 방면 - 독서, 클럽활동, 지도교수와의 상담-에 걸쳐 탐색하여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Ⅲ. 가설

1. 독서량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불만이 많고 학업에서 효능감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터넷 중독을 포함하여 성인 남녀의 10% 정도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일부 환자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치료에서 방치되어 있다. 독서치료프로그램은 대안으로 모색되어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학생들 또한 독서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성향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근·김은엽·김수경·김순화(2008)는 대학생들과 주부들이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사례로 기록하여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김춘경과 김미화(2005)는 독서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4,5,6학년생들은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자존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독서치료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을 읽으면서 내면에 깊숙하게 파묻혀있던 심리적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개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경험하게 한 원인을 직시하게 한다. 독서를 하면서 다양한 대리경험을 하면서 인식수준이 넓어져 심리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최근 독서란 개인의 심리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창시절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 또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터넷 중독에 걸린 대학생들은 인터넷이 중단되면 감정적·심리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책 읽기를 통하여 인터넷과 다른 경로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대리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활동과 경험에 대한 행동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 독서량이 늘어나면 인터넷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온라인에 몰두하면서 학업을 등한시하는 자

세가 변화되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이 독서량이 많아진다면 학업생활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

가설 1: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독서량이 많아지면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2. 동아리활동

대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른 성장 환경과 배경을 지니면서 전공 또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며 대인관계를 넓힐 기회이므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김기영, 2001; 김덕진·양명환, 2003). 이현아 (2004a)는 인터넷 중독 대학생들을 게임중독자, 교제중독자, 전공자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게임중독자와 교제중독자는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아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에서 성취감을 얻는다면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이 현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무력감이 감소하며 정체된 자기효능감이 보완되어 그들의 학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결여되어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 대안을 모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전효정 (2006)에서는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가 불안정하여 소외감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에서 채팅·머드게임에 몰두한다고 조사하였다. 동아리 활동에서 단체생활을 경험하여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켜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중독성향을 완화해 학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학생 동아리 유형은 다양하며 독서, 컴퓨터 게임, TV 시청과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 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더 높은 만족감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김덕진・양명환, 2003). 특히 인터넷 활용률이 높으며 많은 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여가활동을 보내는 현실에서 대학에서 상당수의 동아리 활동은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이 깊다 (엄나래·정영숙, 2006). 따라서, 동아리 활동은 인터넷 중독이 강한 대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개선할 수 있으나 동아리 유형에 따라 특히 컴퓨터와 게임 동아리에 가입한 인터넷 중독 학생들은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더욱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가설 2-1: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가 향상된다.

가설 2-2: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다.

3. 지도교수와의 상담

인터넷 중독자들은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병리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조절능력과 효능감이 저하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김병구·박중규·고영삼·배성만·엄나래, 2008). 주변 환경에서 인터넷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행동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이고 적대적이면 인터넷 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검증되었다 (양돈규, 2003; 오원희·이수진·박중규·홍세희, 2005; 유근원, 2005; 김병구 외, 2008). 이현아(2004a)와 전효정(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원인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온라인 상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원인변수라고 분석하였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며 대인관계범위 또한 넓어지므로 이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다. 대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통제가 적어져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면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되돌아보고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현아, 2004b; 여정숙·이수연, 2007) 이 강한 대학생들은 자아조절능력과 자기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도교수 면담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 면담은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설 3: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상담횟수가 많아질수록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IV. 실증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절차 및 연구표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서 각각 2,000명씩 추출하여 10년이상 추적한 종단조사이며 2007년도에는 200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07년도에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 981명에게서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UMPC(노트북)을 활용한 1:1면접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설문지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추정된다.

2.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인터넷 중독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인터넷 중독은 아홉 항목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2)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3)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4)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5)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6)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7) 인터넷을 한 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하게된다; 8)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잘 안된다; 9)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아홉 항목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 독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지도교수 면담(조절변수)

독서량은 월평균 읽은 책 권수로 독서분야는 문학/과학, 기술, 컴퓨터/경제, 경영관련/사회과학/예술, 문화, 스포츠/종교/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기타 등으로 조사되었다. 독서분야는 문학/분야에 관계없이 골고루/기타/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바꾸었다.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수가 몇 개이며 동아리 활동에 쓰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인지 질문하여 동아리 활동참여를 조사할 수 있었다. 동아리 활동 유형은 외국어 학습/컴퓨터 관련 학습(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시험 준비(공무원, 자격증 시험 등)/문화, 예술(연극, 영화, 사진, 무용, 음악, 미술 등)/문학/종교/시민운동단체(환경, 교육, 의료, 복지 등)/봉사/게임, 오락/정치/스포츠, 레저/신문, 방송/친목도모(동기 모임, 동창회, 향우회 등)/기타로 조사되었다. 동아리 활동유형은 컴퓨터 관련 학습(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과 게임, 오락을 합쳐서 컴퓨터 관련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동아리 두 동아리 유형으로 구분하여 더미 변수로 바꾸었다. 지도교수 면담은 입학 후부터 일 년 동안 몇 회 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다. 수업태도, 학교생활, 그리고, 학점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수업태도, 학교생활, 그리고 학점으로 측정하였다. 수업태도는 다음과 같은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출석을 성실히 한다; 2) 복습을 충실히 한다; 3) 예습을 충실히 한다; 4) 과제를 성실히 한다; 5) 강의 시간에 집중한다. 학교생활은 다음과 같은 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2)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3) 나는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5)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6)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7) 우리 학교는 교과목 선택에 대하여 교수님이 적절히 지도한다; 8)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9)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10) 학교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며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학점은 대학교에 따라 만점 기준이 다르므로 백분율로 전환하여 계산하였다.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대학순위, 대학유형, 대학교/대학여부와 전공계열, 대학시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녀 대학순위는 30위권 안과 밖으로 대학유형은 특수한 목적을 지닌 대학과 일반적인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교/대학에 따라 각각 더미 변수로 만들어 연구모델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였다. 대학순위는 중앙일보 평가 시행 이후 11년 동안 평가자료를 모아 여섯 번 이상 30위권 안에 든 학교와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서울국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카틀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대학 유형은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만든 대학교(경찰대학교, 교대, 한국교원대학교)와 일반 국공립·사립대학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시설은 다음과 같은 네 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강의 및 실습시설에 불편함이 없다; 2) 개인이나 그룹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 강의실 등) 이 충분하다; 3) 도서관에는 공부하는 데 참고할 책과 자료가 충분하다; 4) 학교의 컴퓨터 사용 환경(인터넷 등)이 만족스럽다. 월 평균소득은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이자소득세를 비롯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조사하였다.

Ⅴ. 실증분석

1. 표본의 기술통계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응답자 중 166명(성적은 158명)이 표분으로 추출되었다. 남성 비율은 약 27.6%로 여성보다 상당히 적다. 대학교 비율은 87%이며 30위권 대학교에 재직 중인 대학생은 약 26%이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 미만이다. 전공계열로 분류해보면 사회계열이 32.3%로 제일 많으며 자연계열은 16.5%, 인문계열은 13.5%, 공학계열은 12.9%, 의약계열은 12.4%, 예체능은 7%, 교육계열은 5.3%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월 평균소득은 379.74만 원이며 표준편차는 371.24만 원으로 가구소득의 편차

가 매우 심하다. 인터넷 중독은 2.977로서 중독성향이 평균 정도이다 (표 1). 독서량은 3권 정도이나 표준편차가 3.145로서 독서량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 독서 분야는 문학이 절반에 가까우며 분야에 골고루 관계없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약 1/4 정도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독서는 문학에 편중되어 있다. 동아리 활동개수는 1.40으로 보통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며 (.859) 동아리 활동시간도 평균 3.744이고 표준편차는 4.265로서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표 1). 지도교수 면담 횟수도 1.67로 일 년 동안 지도교수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면담을 하고 있으나 표준편차는 2.13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 또한 편차가 매우 심하다 (표 1).

독서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빈도 분석한 결과 동아리 활동 개수는 하나가 2/3 정도 두 개 이하는 90%이며 최대 10개까지 활동하는 대학생이 있다. 활동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 이하가 2/3 정도이며 97%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 활동하며 최대 56시간 활동한다. 독서량은 1권이 약 절반 정도 (45.3%) 2권은 73%, 3권 이하는 86% 정도이며 최대 50권 정도 읽는 학생이 있으며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1년에 1회가 절반 이상 (54.8%) 2회는 3/4 정도 90% 정도의 학생이 3-4회 이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와 동아리활동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표본분포가 치우쳐져 있다.

2. 가설검증

표 1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은 수업태도($r = -.292$, $p < .01$)와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r = -.227$, $p < .01$) 학점과는 연관관계가 유의미하지 못하다 ($r = -.016$, $p > .10$). 독서량이 많아지면 학점이 올라가며 ($r = .203$, $p < .001$) 독서분야가 문학에 편중되어 있으면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된다(수업태도: $r = -.292$, $p < .001$: 학교생활: $r = -.227$; $p < .001$). 그 외에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면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수업태도: $r = .170$, $p < .05$: 학교생활: $r = .444$; $p < .01$).

표2에서 인터넷 중독이 수업태도와 학교생활 그리고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I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가 II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중독은 가설에서 설정된 것처럼 수업태도($\beta = -.227$, $p < .05$) 와 학교생활($\beta = -.154$, $p < .05$)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서가 문학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면 수업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173$, $p < .05$) 동아리 활동시간이 많아지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beta = .273$, $p < .05$).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많아지면 수업에 대한 태도가 성실해지며 ($\beta = .194$, $p < .05$)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 ($\beta = .181$, $p < .05$). 그 외 대학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수업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beta = .171$, $p < .05$)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올라간다 ($\beta = .382$, $p < .01$). 인터넷 중독과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가 대학생

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인터넷 중독과 독서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상호작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β = .173, p <.05) 독서분야에서 문학비율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진다 (β = .273, p <.05). 그림 1과 2에서 평균에서 표준편차 +1 -1을 교차시켜 인터넷 부작용과 독서량과 독서분야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었다. 따라서동아리 활동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인터넷 중독과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못하므로 가설 1은 지지하며 가설 2와 3은 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현 연구모델을 분석결과는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독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서량은 학업성취도에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는 학업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반면에 독서분야가 문학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동아리 활동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 연구는 대학생활에서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독서, 동아리 활동 및 지도교수와의 면담과 같은 학업 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Ⅵ.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인터넷 중독의 악영향에 관한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됐다. 인터넷 중독은 수업태도(β = -.227, p <.05) 와 학교생활(β = -.154, p <.05)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 중독은 대학생들의 학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

현 연구의 가설에서 설정한 인터넷 중독 대처 방안 중에서 독서활동만이 인터넷 중독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독서량이 많아지면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의 수업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β = .173, p <.05) 소설, 에세이와 같은 문학분야 독서비중이 높아지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β = .273, p <.05). 따라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독서량을 늘리되 문학(소설, 에세이)분야와 관련된 독서는 꺼리도록 권장한다면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강한 대학생은 독서활동이 문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중독성향과 문학 관련 독서가 상호작용되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학업 생활 외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의 만족을 충족시킬 대상을 찾는 경향이 있다. 문학작품도 가상의 세계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므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유리되게 하며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인터넷 중독치료는 효과적이나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과 동아리 활동과 지도교수면담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공간 또한 온라인 상으로 옮겨지는 추세여서 동아리 회원들도 포털 사이트에 클럽을 만들어 상호 연락을 주고받고 활동을 한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은 대인관계가 온라인 상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학생활에서 지도교수와의 면담은 대학입시의 광풍에 휘둘려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학원 선생님 및 부모와 이루어지는 상담과 비교하여 횟수와 내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교는 개인의 책임과 관리가 강조되므로 지도교수와의 면담에서 인터넷 중독성향과 같은 개인적 문제를 상담하기는 어려워 지도교수 면담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조절변수로 설정된 변수들도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서분야가 문학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수업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며 (β = -.227, p <.05) 동아리활동시간이 많아지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β = -.151, p <.05). 문학과 관련된 책읽기는 대학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른 영역을 탐구하게 되어 수업에 대한 성실성이 떨어진다. 동아리 활동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은 학교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서 더 많은 만족도를 얻으므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도교수면담횟수는 인터넷중독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수업태도(β = .194, p <.05) 는 성실하게 학교생활(β = .181, p <.05) 은 만족스럽게 된다. 지도교수 면담이 학업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현 대학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학교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는 교직원들로 하여금 연구능력 강화와 영어몰입교육과 해외교류대학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움직임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쏟을 수 있는 여력을 고갈시켜 학생들과 교원 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스승-제자에서 경제적 계약으로 바뀌고 있다. 대학교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학생들과 교원 간 학업생활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성실해지며 학교의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대학교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지표 중심의 연구능력과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교원-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여야 할 부분으로 본다.

대학시설 또한 좋아지면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수업태도: β = .171, p <.10; 학교생활: β = .382, p <.001). 몇몇 상위권 대학이 시설에 지나친 투자를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외 대학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직 떨어지고 있다. 상관관계표 (표1)에서도 30위권 안 대학교는 그 외 대학교(r = .255, P < .01)보다 대학교는 대학(r = .200, p < .01)보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시설 또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를 성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므로 대학시설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을 입증하고 인터넷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 연구 또한 한계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선, 인터넷 중독은 학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현아(2004a)가 인터넷 중독자를 게임중독자, 교제중독자, 그리고, 전공자로 분류하였다. 전공자란 학업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면 인터넷을 활용하여야만 하는 대학생을 뜻하며 이들은 게임중독자와 교제중독자와 비교하여 자기조절감·자기효능감·충동억제능력이 우월한 상태라고 조사하였다. 인터넷 중독이 전공과 연계가 강하다면 인터넷 중독은 수업태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별개로 성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응답자가 학점에 대하여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설문지에 기재하여 인터넷 중독과 연계가 떨어졌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제한적이므로 패널 조사의 특성을 살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성별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30% 미만인 점도 표본구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은 남자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성/여성비율을 절반씩으로 맞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또한, 재학 중인 대학생은 981명에서 응답자는 166명으로 연구모델에서 전체 표본의 17% 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여 패널조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문학작품에 편중된 독서는 인터넷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검증되었으나 문학작품의 종류는 광범위하므로 어떤 주제를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이 인터넷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한국사회는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인터넷의 부작용에도 혹독하게 시달리고 있다. 인터넷이란 어린 학생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의 통념과 대학생은 학생이라기 보다 성인으로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하여 연구와 활동이 초·중·고등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미흡하다. 대학진학률이 86%이므로 대학생활이란 사회로 나가는 준비단계로서 대학생활이 일그러진다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연구에서 인터넷이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인터넷 중독을 대처할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여 인터넷이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김기영.「동아리 여가활동 참여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학생생활연구』제 6호 (2001): pp.27 ~ 52.

김덕진.양명환.「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제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한국체육교육학회지』제 7권 4호 (2003): pp.135 ~ 150.

김병구.고영삼.김상준.나은영.이건.이기성.이수진.이혜경.「2007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김병구.박중규.고영삼.배성만.엄나래.「인터넷중독의 특성 분석 연구」,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김정근.김은엽.김수경.김순화.「독서치료 사례연구」, 서울 : 한울, (2007).

김춘경.김미화.「독서치료프로그램이 우울아동의 우울감.일상생활 스트레스.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19호(2005): pp.75 ~ 104.

김혜원.「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청소년학 연구』제 8권 2호 (2001): pp.91 ~ 117.

박승민.장선숙.임은미.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경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교육심리연구』21권 1호 (2007): pp.27 ~ 45.

변영순·김은하·신수진·김현숙·김지현·구재언·황은희·김정희·박복남·이혜순·이은희·최송희·안영미·박애란·주민선·이정란·이승희「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존감 및 우울 간의 관계 연구」.『간호과학』15권 2호(2003): pp.61 ~ 72.

서재철.조찬형.김주영.안인희.나은아.박수미.「2008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서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소연희.「독서흥미,독서활동,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제 20권 2호 (2008): pp.75 ~ 90.

양돈규.「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청소년학연구』10권 3호(2003): pp.481 ~ 500.

엄나래.정영숙.「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일상활동에서의 몰입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심리학회지:발달』 15권 3호(2006): pp.55 ~ 69.

여정숙.이수연.「인터넷중독 개입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청소년학연구』14권 2호(2007): pp.27 ~ 48.

오원희.이수진.박중규.홍세희.「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장기추적 조사연구」, 서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유근원.「인터넷 게임, 우리 아이 해치는 끈질긴 유혹」, 서울 : 배영교육, (2005).

이해경.「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한국심리학회지:발달』제 14권 4호 (2002): pp.55 ~ 79.

이현아a.「대학생의 인터넷중독유형에 따른 특성과 인터넷중독의 영향」.『대한가정학회지』42권 3호(2004a): pp.27 ~ 49.

이현아b.「인터넷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대한가정학회지』42권 10호

(2004b): pp.63 ~ 77.

전효정.「대학생의 인터넷중독유형에 따른 애착유형과 심리적특성」.『청소년학연구』13권 3호 (2006): pp.137 ~ 159.

Lee, M., Ko, Y., Song, H., Kwon, K., Lee, H., Nam, M., and Jung, I.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 in relation to game genr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2). (2007) pp.278 ~ 285.

Young, K.S. “Cognitive behavior therapy with Internet addicts:Treatment outcomes and implica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5). (2007) pp.671 ~ 679.

부 록

〈표1〉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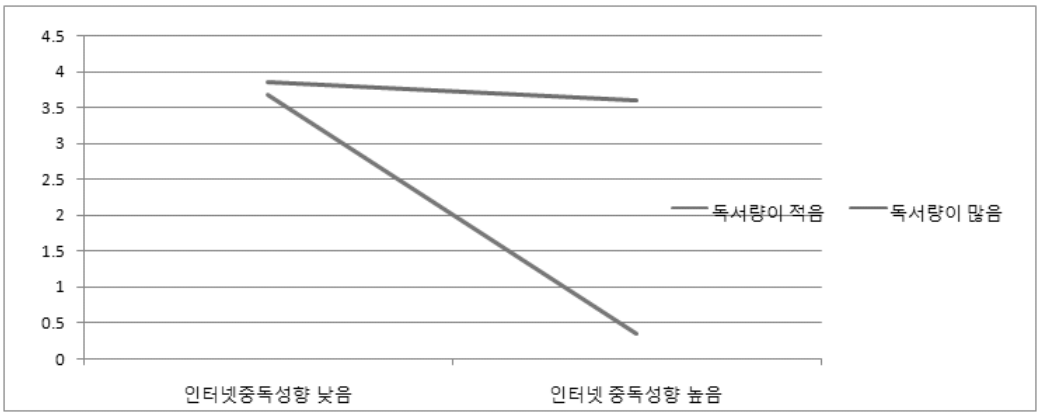
(a= 166; b= 15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 월평균임금은 만원단위)

변수들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성별	.276	448																							
2. 대학순위	.26	442	.136+																						
3. 대학유형	.05	225	.030	-.142+																					
4. 대학교/대학	.87	336	.042	.231***	.091																				
5. 인문계열	.135	343	-.091	-.120	-.017	.050																			
6. 사회계열	.323	469	.022	.041	-.051	.229***	-.274***																		
7. 교육계열	.053	224	-.087	-.082	.061	-.065	.094	-.164*																	
8. 공학계열	.129	336	.232	.007	.065	-.008	-.153*	-.267***	-.091																
9. 자연계열	.165	372	-.062	.165	-.034	.029	-.176*	-.307***	-.105	-.171**															
10. 의약계열	.124	331	-.074	-.024	-.009	-.387	-.146	-.262**	-.089	-.146**	-.168														
11. 예체능계열	.070	256	.035	-.061	.037	.038	-.109	-.191*	-.065	-.106	-.122	-.104													
12. 대학시설	3.37	672	.188**	.255***	.016	.200***	-.039	.148+	-.023	.081	.109	-.302***	-.075												
13 월평균가구소득	379.74	371.24	.192**	-.058	-.029	-.038	-.048	.045	-.065	.094	-.031	.034	-.081	-.008											
14. 인터넷중독	2.977	748	.018	.029	-.138+	.054	.129+	-.034	-.064	.042	-.075	.039	-.050	-.046	-.045										
15. 독서량	2.99	3.145	-.035	-.015	.028	.026	.029	-.050	.034	-.038	.037	.058	-.058	.150*	-.109*	-.101									
16. 독서분야 문학	.476	501	-.195*	.122	-.068	-.088	.036	.131+	-.068	-.122	.148+	.177	-.033	-.057	-.311**	.208*	-.072								
17. 독서분야 다양	.265	442	-.043	-.088	-.156*	-.007	-.042	-.070	.070	.047	-.087	-.060	-.009	-.058	.042	-.104	.177*	-.572***							
18. 동아리 활동개수	1.40	859	,034	.124	.074	.057	.016	.117	.012	-.098	-.004	-.093	.005	.001	.027	.007	.124	-.088	.218*						
19 동아리 활동시간	3.744	4.265	.201**	-.018	-.057	.097	.037	.003	.063	.072	-.107	-.085	.059	.038	-.074	.086	.189	-.244	.227	.070					
20. 동아리활동유형	0.05	.213	.049	-.070	-.053	.086	-.007	-.094	-.053	-.053	.126	-.084	.047	.033	-.063	.056	.010	-.045	-.007	-.006	.213				
21. 지도교수면담횟수	1.67	2.13	.028	-.026	.057	.039	-.047	.019	.025	.102	-.095	.008	.000	.145	.019	-.063	.067	-,173	.035	.057	-.032	.022			
22. 수업태도a	3.64	.500	-.046	.004	.012	-.074	.123	-.047	.128+	-.011	.078	-.017	.060	.170*	.010	-.292***	.094	-.207***	.058	.069	-.073	-.007	.250		
23. 학교생활a	3.19	.542	.175*	.180*	.097	.012	-.056	-.052	.092	.105	.041	-.170	.112	.444***	.009	-.227***	.038	-.132+	.004	.021	-.118	-.099	.257	.357	
24. 학점b	.777	.117	-.274	-.024	.074	-.024	.024	-.074	.055	-.075	.073	.045	.041	.078	.010	-.016	.203***	-.022	.020	.085	-.061	.004	.129	.031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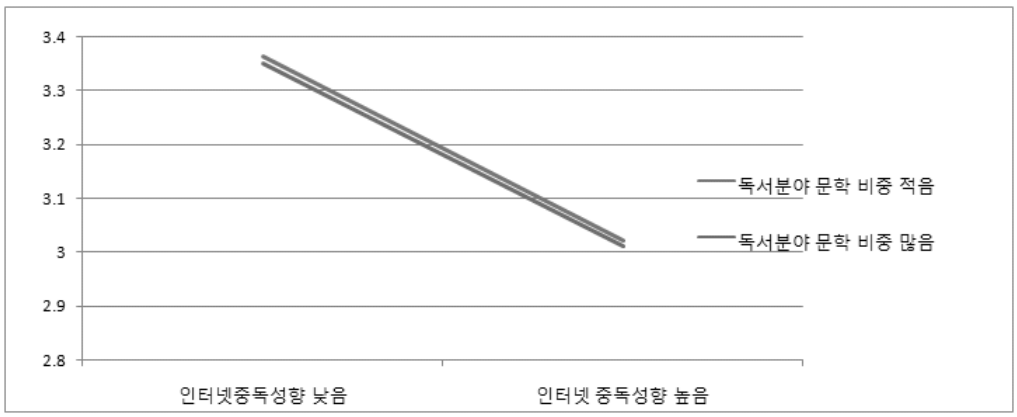
〈표2〉 인터넷 중독이 대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수업태도		학교생활		학점	
성별	-.121(.091)	-.136(.094)	.090 (.089)	.060(.091)	-.330(.023)***	-.300(.025)***
대학교 순위	.010 (.093)	.020(0.93)	.133 (.091) †	.119(.091)	-.028 (.023)	-.019(.024)
대학교 유형	-.035 (.170)	-.034(.173)	.057 (.166)	.065(.169)	.061 (.045)	.055(.046)
대학교/대학	-.088 (.124)	-.078(.126)	-.109(.122)	-.138(.123) †	.029 (.031)	.037(.032)
인문계열	-.098 (.155)	-.067(,158)	.088(.152)	.072(.154)	-.115 (.040)	-.102(.041)
사회계열	-.099 (.141)	-.106(.141)	.762(.448)	.071(.138)	-.175 (.035)	-.168(.035)
교육계열	.074 (.194)	.091(.197)	.079(.104) †	.153(.192) †	-.041 (.050)	-.027(.051)
공학계열	-.039 (.156)	-.038(.159)	.119(.031)	.161(.155) †	-.107 (.039)	-.113(.040)
자연계열	.027 (.149)	.020(.149)	.014(.034)	.092(.145)	-.039 (.037)	-.057(.038)
예체능계열	.045 (.180)	.056(.186)	.087(.023)**	.239 (.181)**	.015 (.045)	.020(.047)
대학시설	.171* (.060)	.161(.062) †	.382(.031)***	.345(.060)***	.160 (.015) †	.177(.016) †
월평균가구소득	.011(.000)	-.005(.00)	-.013(000)	-.004(.000)	.052(.000)	.039(.000)
인터넷중독	-.227(.051)*	-.340(.11)*	-.154(.050)*	-.401(.107)**	.018(.013)	.136(.029)
독서량	.064(.012)	.090(.013)	.071(.012)	.045(.012)	.185(.003)*	201(.003)*
독서분야(문학)	-.227 (.098)*	-.235(.100)*	-.079 (.096)	-.098(.097)	-.146 (.025)	-.123(.026)
독서분야(다양)	-.107(.108)	-.105(.111)	-.034 (.106)	-.043(.108)	-.114(.027)	-.108(.028)
동아리활동갯수	.079(.044)	.064(.048)	.002 (.043)	-.001(.047)	.090(.011)	.083(.012)
동아리활동시간	-.069(.018)	-.147(.014)	-.151* (.009)	-.092(.013)	-.031(.002)	-.142(.003)
동아리유형(컴퓨터)	.004(.178)	.049(.197)	-.079 (.174)	-.094(.192)	-.026(.047)	-.007(.052)
지도교수면담	.194(.018)*	.228(.020)*	.181** (.017)	.212(.020)**	.076(.004)	.080(.005)
인터넷중독*독서량		.173(.024)*		-.100(.023)		.043(.006)
인터넷중독*독서분야		.099(.139)		.273(.135)*		-.083(.037)
인터넷중독*독서분야		.109(.161)		.101(.157)		..019(.041)
인터넷중독*동아리활동개수		.012(.074)		.047(.072)		-.027(.019)
인터넷중독*동아리활동 시간		.093(.014)		-.011(.014)		.180(.004)
인터넷중독 * 동아리유형		-070(.210)		.037(.205)		-.164(.057)
인터넷중독 * 지도교수면담		-.052(.024)		-.054(.024)		-.030(.006)
수정된 R 제곱/Model F	.142/2.394***	.148/2.083***	.299/4.580***	.311/3.802***	.067/1.568*	.049/1.299

N = 169; N = 158 † p〈0.10, * p〈0.05, ** p〈0.01, *** p〈0.001.
표준화계수가 제시됨. 계수 유의성 검정은 양측검정임. 괄호 안 계수는 표준오차값임.



[그림 1] 인터넷 중독과 독서량의 상호작용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인터넷 중독과 독서분야(문학)의 상호작용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Exploring How to Manage the Internet Addiction on College Study

Hyondong Kim

While 'Internet Addition' emerges as a serious threat to the college student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o examine that. The present study explores how college students can deal with Internet Additi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show that as reading activities become higher, students have better attitudes toward college study. Moreover, literature readings may escalate the negative effect from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show better attitudes toward college study through counseling with professors and reading volume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as various factors may determine the success of college student, educational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extend to manage how college students deal with "Internet Addiction".

Keywords : Internet Addict; College Study; Reading Volume & Counseling with Professors